

No. 2013-27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7. 01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  
: 2013년도 일본통상백서 발표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## 1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간 현황지표

- 엔화환율 :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미일간 금리차 확대에 의해
- 장기금리 : 미국 금융완화책의 조기축소 예상 후퇴 등으로 하락세

구 분	6.24(월)	6.25(화)	6.26(수)	6.27(목)	6.28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98.40	97.75	98.14	97.75	98.87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174.51	1,186.71	1,179.99	1,179.41	1,167.15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13,062.78	12,969.34	12,834.01	13,213.55	13,677.32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0.880	0.860	0.865	0.835	0.855

### 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5월중 수입은 6조 7,616억엔, 수출은 5조 7,676억엔으로 9,939억엔의 무역적자 기록  
\* 對한수입은 2,853억엔, 對한수출은 4,608억엔으로 1,755억엔 무역흑자
- 5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는 0.2%상승했으나, 전년동월비로는 7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지 않음

구분	2011	2012	2013				
			1월	2월	3월	4월	5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1.2(2.0)	4.1			-	-
수 출(천억엔)	653	639(637)	48	53	63	58	58
수 입(천억엔)	697	721(707)	64	61	66	67	68
對한국 수출	52.1	49.7(49.1)	4.01	4.25	5.21	5.07	4.61
對한국 수입	32.9	32.8(32.4)	3.12	2.92	2.81	2.58	2.85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226			-	-
對한국 투자	(24)	(40)	7.5			-	-
소비자물가(전기비상승율,%)	0.0	▲0.2(0.0)	▲0.3	0.1	0.3	0.3	0.2
실업율(%)	4.5	(4.4)	4.2	4.3	4.1	4.1	4.1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42.9(47)	▲3.6	6.4	12.5	7.5	-
엔화 對미달러	79.1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	101.08
환율 對원화(100엔)	(1,391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	1,100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2.9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	12.5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985	0.560	0.740	0.665	0.560	0.600	0.860

주1) ( 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### 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서베이 2013』 PwC저팬, 6월25일  
\*출처:<http://www.pwc.com/jp/ja/advisory/research-insights-report/assets/pdf/global-supply-chain-survey-2013-jp.pdf>
- 『크리에이티브산업 국제전개 간담회 : 중간발표』 경제산업성, 6월25일  
\*출처:[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shoujo/creative\\_industries/pdf/report\\_01\\_00.pdf](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kenkyukai/shoujo/creative_industries/pdf/report_01_00.pdf)
- 『통상백서2013』 경제산업성, 6월25일  
\*출처:[http://www.meti.go.jp/report/tsuhaku2013/2013honbun\\_p/index.html](http://www.meti.go.jp/report/tsuhaku2013/2013honbun_p/index.html)

## ② 주간경제이슈 : 2013년도 일본통상백서 발표

### □ 2013년판 통상백서의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과 국제화

- 경제산업성에서 2013년판 통상백서를 6월 25일 발표
  - 금년도 통상백서는 3부로 구성, 1부에서는 노동생산성과 국제화 전략, 2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출과 대내외직접투자 등의 활용방안, 3부에서는 세계경제동향과 일본의 무역 및 대내외직접투자를 분석
- 백서는 국제화전략이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, 저출산·고령화 추세 하에서도 국제화전략의 추진여하에 따라 일본경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

### □ 일본의 노동생산성, 미국의 60%~70% 수준

- 일본의 실질GDP가 1990년대 이후 5%대에서 1%대로 저하된 가운데, 노동생산성은 전산업 기준으로 미국의 60%, 제조업 기준으로는 70%수준
- 일본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, ①생산성이 높은 부문이 경제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을 높이고, ②각 부문별 생산성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데, 국제화전략은 ①, ② 모두에 직결

### □ 기업 활동의 국제화와 생산성 상승

- 회귀분석에 의하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활동의 국제화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
  - 이미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,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해외수요를 확보해나가는 경우,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
  - 또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얻어지는 학습효과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결
  -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인인 만큼, 해외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외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  - 대내직접투자가 매우 저조한 일본으로서는, 대내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외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적지 않음
- 이러한 이유로 통상백서에서는 기업 활동의 국제화와 중견·중소기업의 활용, 대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일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

## □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 진출에 총력

- 신흥국의 경우 향후 2020년까지 중간층·부유층이 약 14억명 증가, 세계 전체 소비지출 증가의 최소한 60%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
- 신흥국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, 경제발전 정도와 일본기업의 진출상황, 여타 국가와의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「중국·ASEAN」, 「서남아시아, 중동, 러시아, CIS, 중남미」, 「아프리카」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국별로 전략적으로 추진
- 특히, 일본이 유망하다고 보는 아프리카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먼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, 일본은 거의 진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, 인프라개발과, 조세조약 체결을 포함한 FTA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
- 중견·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은 JETRO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출 대상국의 정보제공이나 통관절차 등의 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
  -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의 진출 강화와 함께, 통상교섭을 통한 상대국의 규제 철폐를 요구

## □ 잠재력 있는 산업·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- 해외시장에서 경쟁 잠재력이 있는데도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지 않은 중견·중소기업들의 해외수요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연대강화, 현지 지원체제 강화 등을 추진

## □ 대일 투자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유치에 주력

- 대내적으로는 법인세감세 특구 등 규제개혁을 마중물로 하여 외국기업 유치를 주력하고 대학의 외국인 교사를 늘리기 위한 연구비 보조 확대, 고용비자 발급 신속화, 입국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

## □ 투자수익율이 높은 대외직접투자를 활용, 소득수지 확대

- 현재 무역적자 기조 하에서 경상수지흑자에서 점하는 소득수지 흑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, 무역수지 개선에 더하여 소득수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
  - 일본의 대외직접투자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효율적으로 소득수지 흑자를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수익율이 높은 대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

### ③ 경제정책동향

#### □ 일본정부, 동남아 해상교통망 정비 지원

- 일본 정부가 ASEAN 각국의 해상교통망 정비 지원에 나섬
  - 미얀마에 통근선박 3척을 무상 공여하는 외에 필리핀 등 각국에서 법령 및 안전기준에 관한 역내 통일된 룰 제정을 지원
  - 동남아시아의 경우 하천이나 섬 간의 수상교통이 필수적인 수송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, 일본의 참여를 심화·확대함으로써 일본기업들의 내항선 수주 확대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
- 먼저, 미얀마의 정부 산하 내륙수운공사에 2014년까지 양곤시와 근교를 잇는 통근선박 3척을 무상공여
  - 수년 내에 엔 차관이나 국제협력은행(JBIC)의 수출금융을 사용하여 하천용 여객선과 화물선 40척을 건조하는 한편, 조선소의 수리 및 보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 파견이나 연수도 실시할 계획
- 내항 탱커의 노후화가 심각한 태국에서는 선박의 인증기관인 일본해사협회와 제휴하여 동 협회가 태국 내에서 건조하는 신형선박의 설계를 지원
  -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섬 간을 잇는 선박의 건조자금 지원을 검토
- ASEAN 각국은 내항선에 관한 사고대책 및 법령정비가 과제로 되고 있는데, 일본정부는 선박의 안전기준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각국의 제도 정비에 참여할 계획
  - 조선, 엔진 관련 각 업체들이 일본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각국 정부 및 수운업계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할 목적도 있음
- 동남아시아는 하천이나 연해부의 항로가 역내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, 미얀마에서는 육상 교통망 정비가 뒤져 있기 때문에 국내 물자수송량의 절반정도를 하천항로에 의존하는 실정
  -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크고 작은 섬들을 잇는 항로가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데, 건조한지 50년이 되는 노후 선박도 많아 갱신수요가 큼
- 일본은 대형선박이나 부대시설 분야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, 일본정부가 중견·중소 조선업체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여 내항선시장 개척에서 앞서려는 구상임

## 4 일본기업동향

### □ 액정패널사업의 일·중 연합, 샤프가 중국 대형업체와 합작생산

- 샤프가 6월 27일, 중국에서 최신 에너지절약 액정패널인 IGZO의 합작생산 발표
  - 중국 대형 전자업체에게 기술을 공여하고, 로열티 수입중 약 220억엔을 합작 기업에 출자
  - TV 및 스마트폰 제조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액정패널시장에서 한국, 대만 등의 기업들이 부상함에 따라, 샤프는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자금력과 비용경쟁력이 있는 중국기업과 제휴
- 합작파트너는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전자산업집단(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, CEC)으로 2014년 3월 설립예정이며, 자본금은 약 2,800억엔으로 출자비율은 샤프가 8%, CEC가 92%
  - 인프라 등도 포함하여 신설 공장의 총 투자 규모는 5천억엔 이상으로, 금년 8월 착공 2015년 6월 가동예정
- 대형 TV제조용 외에 IGZO를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, 태블릿, 스마트폰 제조용 중소형 패널을 생산할 계획
  - 당초 생산능력은 46인치형 TV로 환산하여 월 48만대, 10인치형 태블릿은 720만대로, 샤프의 주력 생산거점인 카메야마 제 2공장의 2/3정도 규모
- 샤프는 이번 중국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액정패널사업의 재건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데, 2012년도의 연결결산에서 동 사업의 영업손익이 1,389억엔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그 중에서도 에너지절약 성능 등이 뛰어나 다른 경쟁상대기업보다 먼저 양산에 성공한 IGZO에 대한 기대가 큼
  - 샤프로서는 은행융자가 늘어 생산능력증강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터에, 로열티수입을 출자할 수 있는 CEC와의 합작은 적절했다는 평가
  - 한편,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TV용 증산을 목표로 하는 CEC로서도 샤프의 기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다는 지적
- 샤프는 2009년에 CEC그룹에서 액정패널을 생산하는 CEC판다에게 카메야마 제 1공장의 구세대 TV제조용 액정패널 설비를 매각
  - 샤프측은 기술유출 우려도 남아있으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고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공여를 결정했다고 설명



## 5 한국관련워치

### □ 스미토모상사, 한국 업체와 합작으로 제분사업에 참여

- 스미토모상사가 베트남에서 한국의 대형식품업체와 합작으로 제분사업에 참여기로 발표
  - 소맥분공장을 신설하여 세계 제 4위의 베트남 즉석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,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즉석면보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제빵용으로 판매했을 계획
-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요지에서 식품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자원가격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사업구조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표
- 스미토모가 49%, 한국 씨제이·제일·제당(CJ CJ)이 51%를 출자하여, CJ·SC 글로벌밀링을 설립
  - 약43억엔을 투자, 호치민에서 40km떨어진 지역에 부지면적 40,000평방미터의 공장을 신설
  - 연간 생산능력은 16만톤으로 베트남 국내소비량의 약 15%에 상당하는 규모로 2013년 말에 착공하여 2015년 3월 가동을 목표
- 스미토모상사가 400만톤의 집하능력을 가진 호주 등에서 소맥을 조달
  - CJ CJ가 생산관리 노하우를 제공하여 제면 및 제빵용 소맥분과 혼합분을 생산
- 베트남의 소맥분 소비량은 2020년에 연간 164만톤, 2012년부터 8년간 50%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
  - 특히 최근에는 중간층의 식생활 변화로 빵의 수요가 증가, 2018년에는 제빵용 소비량이 즉석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
  - 스미토모는 제빵용 소맥분의 종류를 늘려 성장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
-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즉석면이나 빵에 사용되는 소맥분의 잠재수요가 높은 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 등 주변국에도 수출을 검토, 2020년에 95억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스미토모상사는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가격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수익체질을 목표로 하여, 중장기 계획으로 곡물이나 원당 등의 식품사업 강화를 사업 중심축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
- 금년 4월에는 한·중기업과 공동출자로 중국에서 설탕 생산에 착수하기로 합의